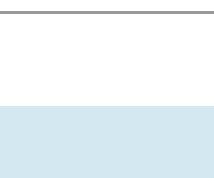


전망과실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Institute of Democracy and Labor (IDL)

2024. 12. 30. 웹진 15호

이슈 리포트 창간주년 특별기획

경제, 노동 지표로 본 한국의 자화상

: 한계에 봉착한 한국형 발전 모델

2024년 12월 30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남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절대 수준에 있어서도 세계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지난 90년대 이후의 하락폭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의 권력계급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표방하는 것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이해관계에 밀접히 뿌리박고 있는 기득권 세력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1) 기존 한국형 모델, 즉 수출주도 정책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거나 (2) 기존 경제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미국 일본의 전략적 하청기지로 전화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게임(내란) 사태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과 국제노동분업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이제는 오히려 위함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정치적 사변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보면,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이들이 게임 사태 이후의 대중 시위 과정에서 각각 남태령(20대 여성)과 태극기(60대 여성)로 대표되는 상반된 시위대의 주력이기도 하다. 20대 여성들은 정치적 기회 공간이 열리자, 자신들의 사회적 계급적 지위에서 격여야 하는 억압에 대해 '시민' 혹은 '민주주의자', '주권자'의 이름하에 싸웠다. 그러나 실은 그들은 '노동자'로서 싸운 것이기도 하다.

전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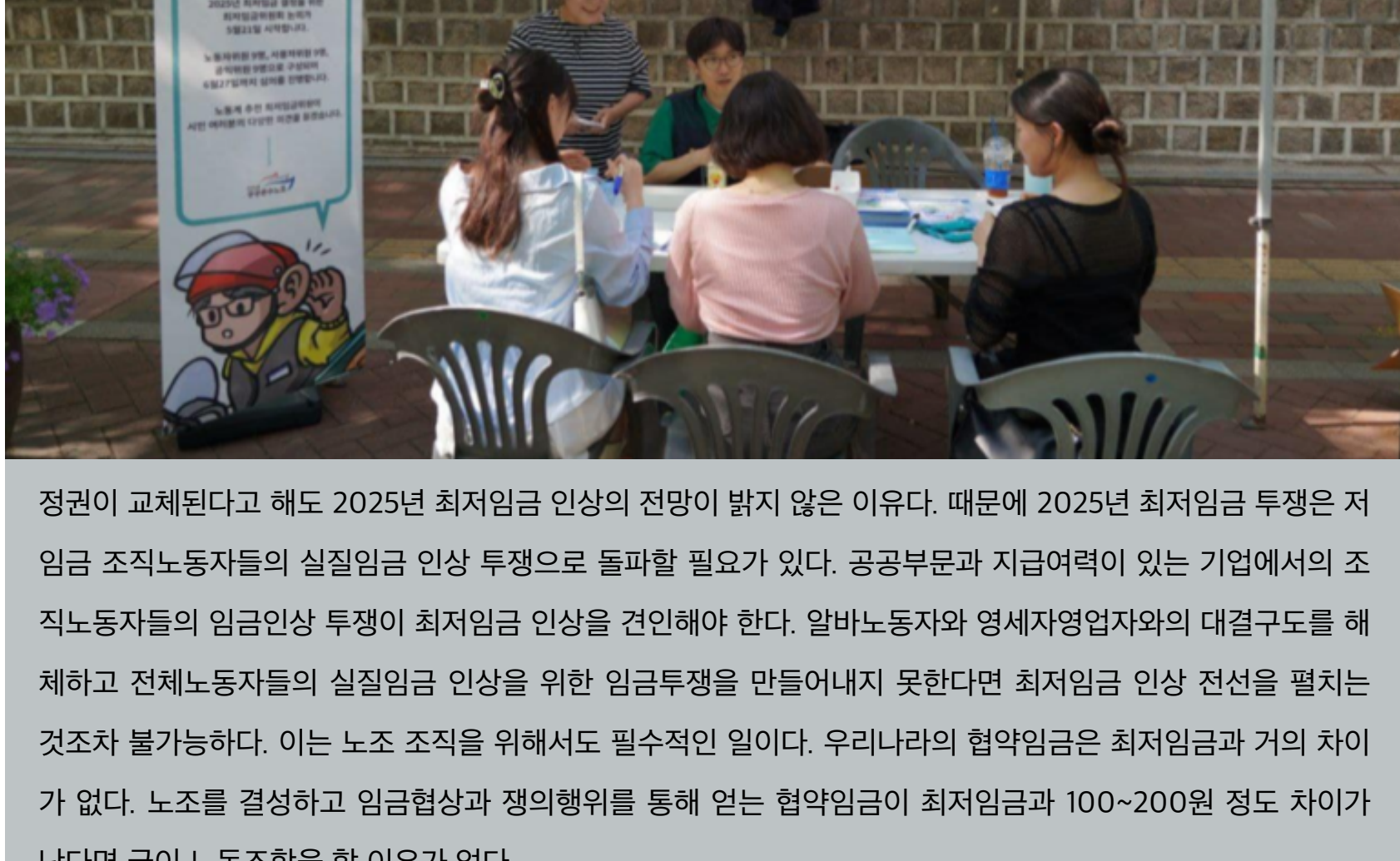
현장 정점 민노의 창

2024년 최저임금투쟁 평가와 2025년 최저임금 투쟁

- 공세적인 최저임금 확대담론으로 임금투쟁의 주체를 발굴하고 공동투쟁을 준비하자!

2024년 12월 30일

글 박정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다. 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조직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 투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과 지급여력이 있는 기업에서의 조직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해야 한다. 알바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와의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전체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임금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전선을 펼쳐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노조 조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의 협약임금은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노동조합을 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6~7월 시기에 집중해서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인상 투쟁의 주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통합시켜야 한다.

전문 보기

[성명서]

나중은 없다. 탄핵이전에도 이후에도 함께 외치고 연대하고 함께 뭉치자! :

“지금 외치지못하면 어떻게 다음에 외치겠는가?
불평등 철폐를, 사회 변혁을, 해방 세상을!”

2024. 12. 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이제부터' 가능하다고 희망사항을 늘어놓기 보다는, 탄핵이후 정치적인 공간 속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실천을 향해 나아갈 정치적 상상력을, 더욱 명시적인 언어로 발화하자.

하나. 87년 6월항쟁으로 시작된 87년체제는 자신의 체제전환을 완성하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체제에 균열 이상의 새로운 변혁적인 전환을 가져올 힘을 만들어야한다.

둘. 권력은 인민, 민중에게 있다. 그것이말로 이름만이 남은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일 것이다.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세우고, 이제야말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야한다. 인민 스스로 헌법 제정권력으로 나서야한다.

셋. 헌법의 제정권자인 인민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이 인민주권의 주체로,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로 나아가도록 계속 발언하고 행동하여야한다.

넷. 촛불 대중의 광장은 모든 노동하는 인민들의 사회적 총파업으로 연결되고, 노동하는 이들의 사회적 총파업은 광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한다.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체제 변혁으로!

전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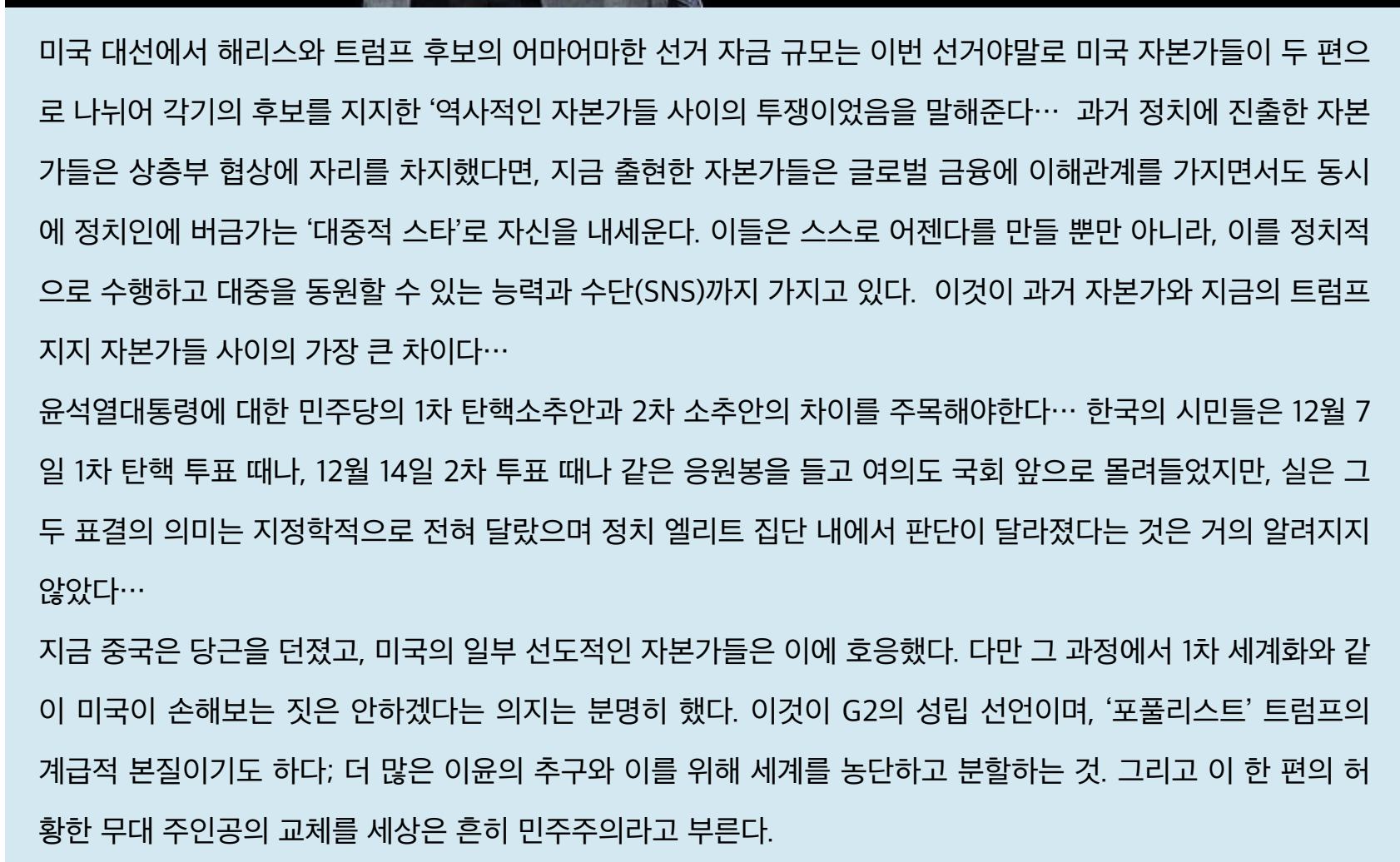
글로벌 리포트

자본가들과 권력자들

: 미국 트럼프 정권의 성격과 새로운 자본가집단의 출현

2024년 12월 22일

글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 규모는 이번 선거야말로 미국 자본가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각기의 후보를 지지한 '역사적인 자본가들 사이의 투쟁이었음을' 말해준다... 과거 정치에 진출한 자본가들은 상충부 협상에 자리를 차지했다면, 지금 출현한 자본가들은 글로벌 금융에 이해관계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정치인에 버금가는 '대중적 스타'로 자신을 내세운다. 이들은 스스로 어젠다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수행하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SNS)까지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과거 자본가와 지금의 트럼프 지지 자본가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다...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1차 탄핵소추안과 2차 소추안의 차이를 주목해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12월 7일 1차 탄핵 투표 때나, 12월 14일 2차 투표 때나 같은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실은 그 두 표결의 의미는 지정학적으로 전혀 달랐으며 정치 엘리트 집단 내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 중국은 당근을 던졌고, 미국의 일부 선도적인 자본가들은 이에 호응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차 세계화와 같이 미국이 손해보는 짓은 안하듯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이것이 G2의 성립 선언이며, '포폴리스트' 트럼프의 계급적 본질이기도 하다; 더 많은 이윤의 추구를 위해 세계를 농단하고 분할하는 것. 그리고 이 한 편의 허황한 무대 주인공의 교체를 세상은 흔히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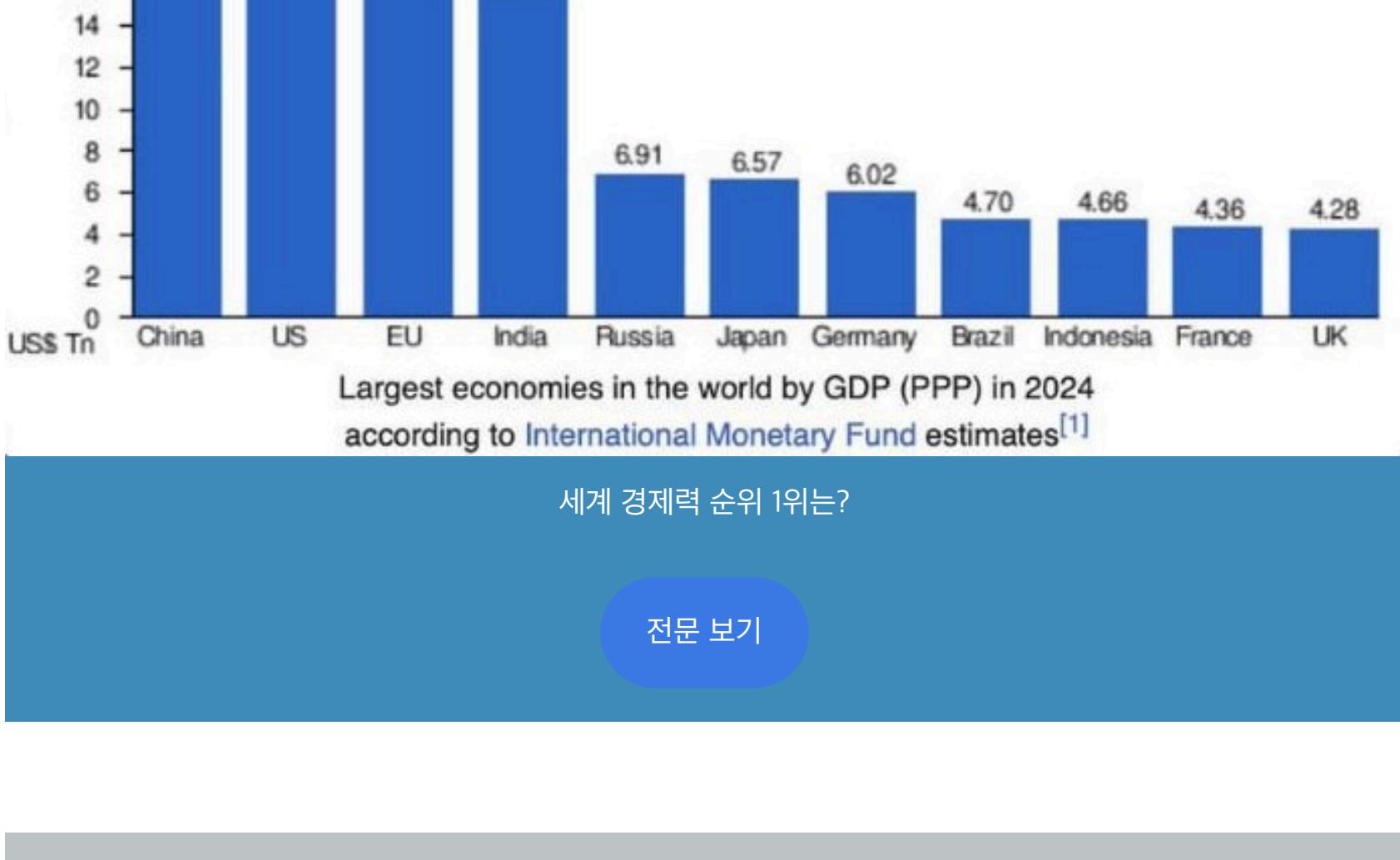
전문 보기

오늘의 차트

실질구매력(PPP) 기준 GDP

2024년 12월 30일

글 <전망과실천> 편집부



세계 경제력 순위 1위는?

전문 보기

교육 선택

[후기] 긴급시국토론회

"2024년 게임-탄핵 국면에서 노동자파의 시각과 전망"

긴급 시국 토론회

"2024년 게임 - 탄핵 국면에서 노동자파의 시각과 전망"

기조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일시: 2024년 12월 23일(월) 오후 7시-9시
- 장소: 온라인 강연 토크(200M)
- 신청: 구글신청(<https://bit.ly/49Xr1wR>), QR코드

87년체제가 조종을 고하는 현재, 좌파적 관점에서 계급정치와 사회적 동맹정치의 전망,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변혁적 상상력과 일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 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demolabor1848@gmail.com

토론은 좋았습니다. 긴 발제에 대해서 대체로 필요한 문제제기와 설명으로 이해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들을 털어놓고, 의문들을 제출하면서 발제문의 논지와 여러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이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논의는 종잡기 어려운 면도 있었으나, 다행히 해야할 이야기들을 대체로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였습니.

87년 헌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문제제기라는 의견도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 헌법에 대한 해부를 제대로 한 논문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87년 헌법에 대한 '신화화'가 심각합니다. 헌법 제정이 어떻게 개정과 다른가? 이도 이제 생각을 해야할 주제입니다. 운동도, 좌파도 이런 문제의식은 80년대 이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 주제와 이 제안이 얼마나 '힘난리' 길을 가야할지도 판단이 됩니다.

전문 보기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연구소 후원 <https://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직접 이체 신한은행 140-014-229636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demolabor1848@gmail.com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2 길 17-8 #04352

발행인 겸 편집인 권영숙

수신거부 Unsubscribe



연구소 후원하기

웹진 <전망과실천> 구독하기